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회 삶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분명히 어려움과 도전도 있습니다. 삶이 결코 쉽지 않듯이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원자에게 프란치스코성소가 있는가? 입회자가 서약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형제회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등등 자주 묻게 되는 질문들 그 자체도 어렵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욱이 회계가 기금을 잘못 사용했거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회원이나 평의원들이 있거나, 또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형제회 삶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회원이 있을 때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부딪칠 때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형제회에 고민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실질적인 상황들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당황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에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면, 결코 과잉반응을 해서도 신속히 반응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며, 그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대화도 나누고, 필요하면 상급 평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행동적인 것이든, 비행동적인 것이든 다른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형제회의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 결정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조 되어있다면, 마음이 산란할 때는 평화로 이끄는 해답과 해결책을 내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전혀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저 자신 역시 이런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있기에,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당신이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솔직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받을 영적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선과 엄청난 평화로 이끄시는지를 보게 되면서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이심이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크고 많은 문제들을 결정을 하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나에게서 내려놓고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성취하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실제적이면서도 훌륭한 권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문제를 내려놓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식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습을 몰아내는 덕행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분노도 흥분도 없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탐욕도 욕심도 없습니다.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
근심도 분심도 없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 곳에
원수가 침입할 틈이 없습니다.

자비심과 깊은 사려가 있는 곳에
경박도 고집도 없습니다.

내려놓자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레스터 바흐신부님께서 즐기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처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 긴장속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어서, 그 문제를 나에게서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 근심도 분심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힘들었던 상황이 더는 힘들게 여겨지지 않으며,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걱정은 더더욱 없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흐리는 것이 악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권고 말씀에서 무지, 분노, 흥분 그리고 탐욕을 악이라고 하시면서, 그 각각의 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분노로 흥분되거나, 또는 탐욕으로 삶이 혼란스러워질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덕을 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울 때는, 사랑을 추구하고, 분노가 있을 때는, 인내를, 근심과 분노가 있을 때는 고요와 묵상을 갖도록 하면 됩니다. 모든 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나의 덕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덕들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덕을 갖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 오직 하나의 성덕만이라도 충만되기를 기도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모든 덕이 당신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덕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되돌려주고, 명확한 비전도 줍니다. 덕은 악을 쫓아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온과 자제력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이 얼마나 고결한 진실입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식별 과정

식별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별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양성자이신 Anne Mulqueen 자매가 FUN 매뉴얼에서 알려준 식별 방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과정으로 저는 프란치스칸 삶을 통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기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식별할 때 사랑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성 프란치스코의 17 번째 권고 말씀을 자주 되새기곤 합니다.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 ... 두려움과 무지는 식별하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좋은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사랑과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오 하느님, 저희에게 당신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주소서...” 라고...

지혜(진리) –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지혜를 단순히 순박하다는 의미, 또는 사실에 대한 무지의 의미가 있는 무식함을 깨닫기 위해서만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겸손과 순수함으로, 지혜는 우리 자신을 넘어 항상 이루시는 하느님의 계획, 가끔은 흥미로운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알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는 제일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상황에 연루된 모든 이들과 대화를 하며 다른 이들로부터도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서로 극히 중요한 문서인 회칙, 회헌과 규정, 그 외에도 영적 보조자를 위한 책자나 지도자를 위한 책자, 양성교재, FUN 매뉴얼 그리고 가톨릭 교리와 같은 훌륭한 자료를 통해 알도록 이끌어 줍니다. 저는 이런 지혜의 말씀이 담긴 이 같은 자료들을 자주 보면서 해결책과 답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선(사랑) –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도록 용기와 의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조언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형제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며 더 큰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끄시며, 결코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엄격한 사랑이 필요함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진실을 대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이가 통과해서는 안 되는 문을 닫아 못 가게 하고, 그를 위해 하느님께서 열어놓고 계신 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악덕을 몰아내고, 덕(선)의 안내를 받으며, 평정 속에서 신뢰를 갖고 식별의 과정을 거쳤다면, 여러분께서는 훌륭하게 잘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결정을 실행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할 거로 생각했던 일들을 완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회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